

이두박건 활차의 충돌징후 - 3 증례 보고 -

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형외과, 세명정형외과*

최창혁 · 장우창* · 김태훈

목 적

견관절증에 대한 관절경 검사 중 분리된 이두박건 활차(detached biceps pulley)를 발견 하였으며 그 임상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- 증례1 : 17세의 야구선수로서 견관절의 통증 및 외회전 제한 소견을 보였다. 관절경 소견 상 후기 발동기(late cocking) 위치에서 이두박건구 부착부에서 분리된 이두박건 활차가 후방관절순에 충돌하여 관절순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, 활차를 제거한 후 관절운동과 동통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투구가 가능하였다.
- 증례2 : 35세의 남자로서 수 차례의 전방 견관절 탈구로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하였다. 상완의 운동에 따라 분리된 이두박건 활차가 이두박건을 따라 미끄러져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, 명백한 충돌징후는 확인할 수 없었다. 전방관절순의 수복 후 이두박건 활차의 이동이 감소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.
- 증례3: 44세의 남자로서 교통사고 후 우측 견관절통 및 견축에 비해 약 10도의 외전 외회전 제한 소견을 보였다. MRI 소견상 회전건개 부분파열의 소견을 보였으며, 관절경 검사상 분리된 이두박건 활차의 충돌 소견을 보여 절제하였다.

결 과

이두박건활차는 관절내 이두박건 장두의 활주를 유도하며, 견관절 운동 시 이두박건 장두에 가해지는 전상방 전단응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. 활차의 형성, 발달 및 변형으로 인한 증상의 유발에는 견관절의 병변, 과도한 관절운동 및 손상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결 론

견관절의 병변에 대한 관절경 치료 시 3례의 분리된 이두박건 활차의 양상을 확인하였으며, 충돌징후를 유발할 경우 절제 후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.